

2025. 9. 2

해외동향부 (제 7239)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대법원의 관세정책 지지 기대 연준 독립성 관련 금융불안 우려 일축
 - ECB 라가르드 총재, 역내 물가는 안정적. 프랑스 은행 시스템은 견고
 - 중국 시진핑 주식, 중국 주도의 안보체계 강화. 주요 협력국에 투자 및 대출 확대
 -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5개월 만에 최고치. 기존주택 가격은 전월비 하락
- 국제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 유럽은 라-우 전쟁 및 프랑스 재정 상황 등이 영향
 - 유럽 주가 상승[+0.2%], 달러화 약세[-0.1%], 독일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방위 및 제약 관련주 매수 증가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9월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소폭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0.1% 하락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노동절로 휴장
독일은 프랑스의 국채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390.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3.1원, 0.04% 하락). 한국 CDS 강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9/1일	8/29일	전일대비			9/1일	8/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6,460.3	-	국채금리 10y	미국	휴장	4.23%	-
	유럽	551.43	550.14	+0.23%		독일	2.75%	2.72%	+2bp
	중국	3,875.5	3,857.9	+0.46%		영국	4.75%	4.72%	+3bp
	일본	42,189	42,718	-1.24%	CDS 5y	한국	20bp	20bp	+0bp
	한국	3,142.9	3,186.0	-1.35%		중국	44bp	44bp	-0bp
환율	달러지수	97.70	97.77	-0.08%	위험지표	EMBI+	-	353	-
	유로화	1.1711	1.1686	+0.21%		VIX	16.12	15.36	+4.95%
	엔화	147.18	147.05	-0.09%		WTI유	휴장	64.01	-
	위안화	7.1377	7.1308	-0.10%	원자재	구리	휴장	451.9	-
	원화	1,393.7	1,390.1	-0.26%		금	3,476.1	3,448.0	+0.8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대법원의 관세정책 지지 기대. 연준 독립성 관련 금융불안 우려 일축

-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것이며, 대법원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도 정부는 이미 대안을 마련해 두었다고 강조. 일례로 다른 법률(스무트-홀리 관세법 등)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첨언
- 연준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그 동안 연준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 또한 연준이 쿡 이사 관련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행정부가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언급.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
- 아울러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따른 금융불안 우려를 일축.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채권수익률 역시 나쁘지 않다면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 시장에서는 내년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연준이 물가안정보다 고용확대와 정부의 차입비용 감소를 강조하여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FT)
-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주택비상사태(national housing emergency)'를 금년 가을에 선포할 수 있다고 언급.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이자율로 주택시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인도가 미국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했으나 이는 수 년 전에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고 언급. 다만, 인도와의 무역협의를 재개할 계획인지는 불분명. 일부에서는 최근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 무역협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러시아, 러-우 전쟁의 원인은 서방 국가의 개입. 위기의 근본 원인 제거가 중요

- 푸틴 대통령은 러-우 전쟁의 경우 서방의 개입이 원인이며, 특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을 부추겼다고 지적. 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 ECB 라가르드 총재, 역내 물가는 안정적. 프랑스 은행 시스템은 견고

- 역내 물가안정은 달성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 프랑스의 경우 국채수익률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나 IMF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은행 시스템 역시 견고하다고 발언
- 한편,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돌렌츠 총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금리인하 사이클은 종료되었다고 진단. 핀란드 중앙은행 렌 총재는 인플레이션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유로존 8월 HCOB 제조업 PMI(확정치), 3년 만에 확장의 기준 50 상회

- 8월 HCOB 제조업 PMI(확정치)는 50.7을 기록, 전월(49.8) 대비 상승하며 '22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확장의 기준 50 상회. 내수와 생산이 증가했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견해도 증가. 특히 생산지수 및 신규수주지수가 3년여 만에 최고

■ 중국 시진핑 주석, 중국 주도의 안보체계 강화. 주요 협력국에 투자 및 대출 확대

- 시진핑 주석은 SCO(상하이협력기구: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안전보장체계) 회원국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 또한 SCO의 은행 컨소시엄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100억위안 규모의 추가 대출을 제공할겠다는 의사 피력

■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5개월 만에 최고치. 기존주택 가격은 전월비 하락

- 8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5를 기록, 전월(49.5) 대비 상승했으며, 이는 5개월 만에 최고 수준. 또한 3개월 만에 확장의 기준 50을 상회.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부진한 국내 수요 및 수출 둔화 등을 고려 시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8월 기존주택 가격은 전월비 0.77% 떨어져 하락세 지속. 일부에서는 향후 당국의 지원정책 시행 가능성,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등을 고려 시 기존주택 가격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2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S&P 글로벌 제조업 PMI,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對인도 관세정책, 자국 기업의 중국 대체 공급망 우회 전략을 저해 - NYT

(India Was the Economic Alternative to China. Trump Ended That.)

- 다수의 미국 기업은 China Plus One 전략(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생산기지 확대로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추진.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는 주요 국가로 주목받았고, 미국 기업은 생산기지 설립 등 막대한 투자를 진행. 그러나 트럼프의 對인도 50% 관세부과 시도 등은 민간기업의 對인도 투자 효과 및 제조업 수출저하 등을 초래
- 인도는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통해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시도. 이에 미국 기업의 진출을 환영. 그러나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정책은 인도가 親중국으로 선회하는데 영향. 다만, 일부에서는 인도와 중국 간 경쟁구도로 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Brookings Institution)

■ 미국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기 역동성 저해할 소지 - The Economist

(How the migrant crackdown threatens America Inc)

- 미국 내 반이민 정책 강화로 이주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대형 소매업체 등 일부 기업의 매출이 감소.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일자리 증가세 둔화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 실제로 이민 노동자 비중이 높은 농장 및 건설 부문 등에서는 고용 증가율이 둔화
-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제한 등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도 어려움을 겪을 소지. 특히, 자국 근로자 보호의 역효과로 IT 업계는 인력난에 직면할 가능성. 이는 AI 부문 우수인재 유치 및 데이터 센터 건설인력 확보 등을 저해. 그 동안 경제는 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해 역동성을 유지했다는 사실 상기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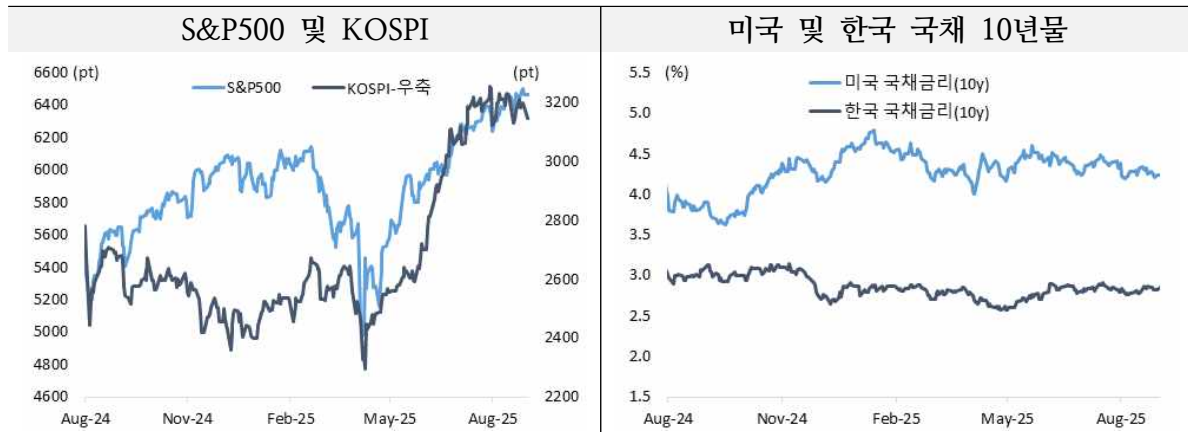
■ 중국 증시, 외국인 투자자 유치 위해 강세장 속도 조절 등 정부 노력 요구 - 블룸버그

(How to Go From 'Anywhere But China' to 'Buy China')

-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동안 중국 증시 투자에 신중했지만, 중국 주가의 상승세 회복과 막대한 저축을 보유한 가계의 증시 투자 확대 등으로 중국 증시 진입을 고심.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유입 촉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노력이 절실
- 첫째, 강세장 속도 조절. '15년 본토 증시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CIS300지수가 '24년 경기부양책으로 6거래일 만에 30% 급등했는데, 당시 외국인 투자자는 진입 기회 상실. 둘째, '21년 시행한 빅테크 단속 강화는 재고할 필요. 오히려 자본 수익률 강조 풍토 조성 and AI 분야에서의 올바른 정부 비전 제시 등이 중요

- **신흥국 주가의 트럼프 랠리, 기업실적 악화관세 현실화 등으로 하방 압력 증가 - 블룸버그**
(EM Stocks' Trump Rally at Risk as Tariff Reality Kicks In)
 - MSCI 신흥시장(EM) 지수가 연초 이후 8월까지 매월 상승하는 등 신흥국 주가는 상당한 랠리가 진행 중. 하지만, 기업이익 전망치는 13분기 연속 예상치를 밑돌고, 추정치 또한 하향 조정되며 주가와 기업실적은 상반된 흐름 전개
 - 이는 트럼프 정책에 기인. 신흥국의 주가 랠리는 주로 미국의 무역 및 재정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미국 달러화의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대체 자산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하지만, 트럼프의 기술수출 제한과 관세 장벽은 신흥국 기업의 매출과 이익 성장에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
 - 특히, 미국의 對인도 수출품 50% 관세 부과, AI 관련 칩 수출 규제, 저유가 유도에 따른 중동지역 타격, 관세 부과 전 수출 확대 등 선행적 완충 장치의 종료 등은 향후 신흥국 증시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미국 법원의 트럼프 관세 제지, 국내외 경제 질서 개편의 중요한 시험대 - Financial Times**
(The real significance of the US court ruling on tariffs)
- **미국 증시, 닷컴 버블을 넘어선 역사적 고평가 국면으로 투자자 주의 필요 - WSJ**
(U.S. Stocks Are Now Pricier Than They Were in the Dot-Com Era)
- **중국, 러시아·인도와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미국 주도 세계 경제 질서 위협 - 블룸버그**
(Xi Offers a Glimpse of His Alternative World Order)
- **일본의 내년 예산안 편성, 심각한 재정난 및 복지비 지출 요구 등의 압박 직면 - Reuters**
(Japan eyes record spending requests on rising debt, social welfare costs)
-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각국의 금융 비효율성 완화 및 현대화 촉진 예상 - Financial Times**
(Stablecoins will force finance to modernis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